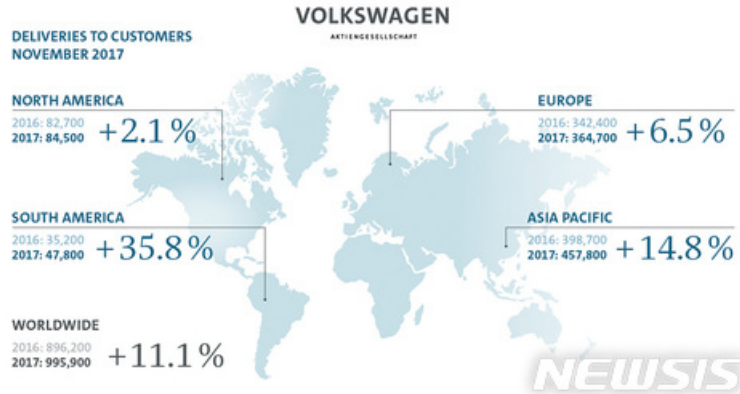


## [수입車 단신] 폭스바겐, 11월 전세계에 99만5000대 인도 外

등록 2017.12.20 14:00:34



폭스바겐 11월 세계 인도량

【서울=뉴스시스】

▲폭스바겐 그룹은 11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시장에 지난해보다 11.1% 증가한 99만5900대를 인도했다고 20일 밝혔다.

11월까지의 누적 인도량은 974만34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.9% 늘었다. 폭스바겐 그룹 8개 브랜드는 1~11월 유럽 지역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.3% 늘어난 400만대를 인도했다.

북미 누적 인도량은 88만49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.7% 늘었다. 최대 시장인 중국의 올해 누적 인도량은 지난해보다 3.7% 증가한 372만4200대였다.

▲렉서스 코리아는 20일 잠실 컨벤트투에서 신형 LS 500h를 소개하며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플래그십이라는 새로운 세그먼트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.

또 11년만에 5세대 풀 모델 체인지로 돌아온 LS의 커뮤니케이션 슬로건을 비저너리 하이브리드'로 발표하며 신형 LS 500h를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브랜드가 되겠다고 밝혔다.

신형 LS 500h는 GA-L 플랫폼에 의해 더 낮고 넓어진 차체를 통한 역동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이 특징이다. 가격은 LS 500h AWD 플래티넘이 1억7300만원, AWD 럭셔리가 1억5700만원, 2WD 럭셔리는 1억5100만원이다.